

교육 경쟁과 중등 사학의 개혁 과제*

김 송 일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요 약>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육은 변화되어야 하며 경쟁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중등교육에 있어서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고려할 때 중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의 개혁 노력은 매우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 중등 사학은 의식의 전환, 재정자립도의 고양, 교육의 질적 향상, 특성화 교육방안의 모색, 입시교육으로부터의 탈피,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의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rziehungskonkurrenz und die Reformaufgaben der Privatmittelschule

Kim, Song-II
Dept. of Education

<Zusammenfassung>

Es versteht sich von selbst, daß unsere Schulerziehung in der Konkurrenzgesellschaft verändert werden muß, um der Forderung der zeitlichen Veränderung und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entsprechend zu handeln. Wenn man gleichfalls auf die besondere Tatsache Rücksicht nimmt, daß das spezifische Gewicht der Privatmittelschule, in der koreanischen Mittelschulerziehung einzunehmen, sehr groß ist,

* 이 논문은 1998년 울산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handelt es sich um den reformatorischen Versuch, daß die Privatmittelschule ihre Konkurrenzkraft verstärkt. Es wird so in diesem Aufsatz die Notwendigkeit betont, daß sie die folgenden Aufgaben eilig erledigen muß, beispielsweise die Umwandlung des Bewußtseins, die Überwindung der finanziellen Schwierigkeiten, das Streben nach der qualitativen Verbesserung der Schulerziehung, die Spezialisierung der Privatmittelschulerziehung, die Verzichtung auf den Vorbereitungsunterricht für die Aufnahmeprüfung, und die Erhöhung der Lehrerspezialität und -verantwortlichkeit.

I. 머리말

첨단 과학기술 시대, 세계화·정보화 시대로 예상되는 21세기를 앞두고 대통령교육정책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지난 '95년 5월부터 4차에 걸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식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일, 즉 국민의 지식 창출 및 활용능력을 최대한 제고시키는 일이며,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은 교육이라는 인식 하에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5; 1996. 2; 1996. 8; 1997. 6).

새 정부 출범이후에도 교육개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IMF 관리체제와 같은 국난의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서 꼭 필요시 되는 경쟁력 있는 인재의 양성과 '제2의 건국은 교육개혁을 통해 이룩한다'는 기본입장(교육부, 1998. 10. 19: 5-6)하에서 교육부는 지난 1998년 10월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데 이어(교육부, 1998. 10. 19), '교육비전 2002 : 새 학교문화 창조 방안'을 발표하면서(교육부, 1998. 10. 22) 지금까지의 대학입시제도의 관행과 중·고교 교육방향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교육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개혁안의 기본 취지는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의 도입과 함께 지금까지의 입시위주의 중등교육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계발하는 전인교육을 강화하여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겠다는 것으로, 학교 토론 문화의 형성, 교수-학습과정의 개별화 실현, 다양한 학습체험의 수행, 평가의 다양화 및 투명성 보장, 교원의 전문성·책무성 제고, 학교경영의 자율성 증진 등 6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교육부, 1998. 10: 4-17).

이와 같은 개혁안의 추진 과정에서 중등 사학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 중등 교육의 사학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고려할 때, 중등 사학의 특수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살리면서 학교별 교육이 추구하는 다양성의 신장을 통하여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 수요자들이 향상된 양질의 교육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의 조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제 중등 사학은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급속한 상황변화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이를 사학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열악한 조건하에 있는 대부분의 중등 사학이 IMF 관리체제하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역동적인 협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새로운 사학의상을 정립하여 공정하고 자율적인 경쟁 속에서 국민 교육의 질적 향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에 옮기는 일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중등 사학 교육에도 경쟁력의 강화를 통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추

구하여야 한다는 사고 전환을 통하여 학교 교육에 있어서 혁신적 변화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예상되는 경쟁적 관계 속에서 사학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고, 사학의 활로를 찾기 위한 최소한의 실천적인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새로운 의식 체제의 확립

역사적으로 볼 때 사학은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임하여 새로운 문화를 도입함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일제하에서는 민족정신의 합양과 항일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는 등 우리 나라의 교육발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해방 이후에도 사학은 지속적으로 국가적 과업인 국민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 능력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국민교육기회를 확충하고 민주교육의 기초를 확립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윤정일 외, 1996: 141).

다음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98년을 기준으로 중등학생 수를 보면 전체 학생수의 41.2%가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는 23.2%, 고등학교는 이보다 훨씬 많은 56.8%에 달하고 있다.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중학교의 경우 사립 학교는 우리 나라 전체 2,736개교 중 685개교로서 25.0%를 점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1,921개 학교 중 922개 학교로 48.0%에 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사학에 대한 의존률이 34.5%에 달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수에 있어서도 전체 201,961명 중 37.6%인 76,002명이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에 있어서 사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등 교육 부문의 발전에 있어서 사학이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사학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교육기회의 확대제공을 통하여 평등 의식에 기초한 보편화 교육의 실현에 공헌해온 기여도에 비하여, 교육의 질적인 향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지적 또한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학에 대한 과거의 개방적 자유방임정책과 통제정책 등이 사학의 발전에 제동을 건 주요한 원인의 하나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김종철, 1990: 354-371). 예컨대 1969년부터 실시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와 1974년부터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도입된 고교 평준화 정책 및 획일적인 대학입시제도 등으로 인하여 학생 선발이나 등록금 책정,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과 관련된 자율권을 중등 사학이 직접 행사하기 어렵게 되었다. 사학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지시, 감독 위주의 행정적·제도적 장치와 같은 현실적인 제약요인들은 사학 운영의 특수성을 악화시키고, 사학을 준공립화 시켰으며, 동시에 사학 경영자들의 교육 사업에 대한 열의와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대부분의 사학들은 발전지향적 자세를 견지하지 못한 채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립 중등 학교들이 그동안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꾸준한 투자를 통하여 학교 발전을 가능케 한 명문 사학들이 많이 있었음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표 1> 중등교육의 사학비중 비교(1998)

구 분	학 교 수 (개교)	교 원 수 (명)	학 생 수 (명)
총 계	4,657	201,961	4,338,348
국 · 공립	3,050	125,959	2,552,036
사립	1,607	76,002	1,786,312
사립 비중(%)	34.5	37.6	41.2
중학교	2,736	96,016	2,011,468
국 · 공립	2,051	74,639	1,545,975
사립	685	21,377	465,493
사립 비중(%)	25.0	22.3	23.2
고등학교	1,921	105,945	2,326,880
국 · 공립	999	51,320	1,006,061
사립	922	54,625	1,320,819
사립 비중(%)	48.0	51.6	56.8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1998), 교육통계연보.

그러나 이제 중등 사학은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국 · 공 · 사립을 막론하고 이미 고입 무시험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4대 도시 이외에도 2000학년도부터는 현재 선발 고사를 실시하는 교육청에서는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완전 무시험고입전형제로 전환하고, 뿐만 아니라 학생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이외에도 다양한 평가 기준 즉 출결, 특별활동, 봉사활동 등을 반영하여 중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방침이다(교육부, 1998. 10: 12). 이와 더불어 새 학교 문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2002학년도부터 도입될 예정인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에 따르면 대학입시에 있어서도 무시험전형제가 실시되며, 개선된 학교생활기록부의 활용,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이 존중되는 특별전형 및 학교장 추천제와 수시 모집이 확대 실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교육부, 1999. 10: 3-4). 따라서 앞으로의 학교 교육은 상급학교 입시위주의 교육으로부터 탈피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며, 기존의 교육 공급자 위주의 교육양식은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게 되어 이를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이 강력히 요구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으나 교육부는 '99년도부터 사학을 포함한 모든 초 · 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교육부, 1999. 3: 9), 그 구성 및 운용은 국 · 공립학교에 준하되(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존중해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추가해 운영하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중 이사회의 주요 기능과 중복되는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 · 개정, 학교 예산안 및 결산, 초빙

교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심의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사학의 경우에도 법적 기구로서 법률적 권한과 기능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표출되는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폭 및 영향력은 앞으로 점점 더 증대될 전망이다.

초빙교장·초빙교사제 도입 및 교원정년의 하향조정과 교원노조의 합법화('99. 7.1부터)와 같은 교직계의 상황변화 또한 사학경영자에게 교권의 정립 및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의 제고를 위한 교원들의 질 관리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경쟁을 도입하여 소비자 만족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수준 낮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디지털 동아일보, 1997. 7. 9). 또한 지난 '98년 4월 7일 교육부가 수도권 교장을 초청한 토론회에서는 “현재와 같이 경쟁이 없이 평생 신분보장이 되는 교사사회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경향 티지탈 뉴스, 1998. 4. 8)는 한 현직 교장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든 중등 사학이 현실에 안주하여 수동적으로 현상유지를 기하던 시절은 지나가고, 현재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부모 및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제는 학생과 학부모만 경쟁하던 교육체제에서 학교와 교원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산적인 경쟁을 하여야만 되게 되었다. 보통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중등교육에 자율화 경쟁원리를 보완함으로써 중등교육 전체의 질을 제고하려는 경향은 앞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새로운 교육 체제에 적응하기 위하여 사학의 종사자들은 기존의 시각과 사고의 틀을 깨고 학교의 재구조화(정태범, 1998b: 27-33)를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열정과 각오 속에서 사학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보색하고 이를 기초로 미래 지향적이며 개혁적인 장·단기 학교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학의 합리적·자율적 경영과 책무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를 통하여 학교 설립 당시에 지니고 있었던 전학 이념을 구현하고 중등 사학 교육의 질적 발전에 이바지할 각오를 새로이 하여야 할 것이다. 중등사학의 수월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기혁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국교육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사학의 책무성은 더욱 중대되는 것이다.

III. 재정 자립도의 고양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교육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대전체는 충분히 확보된 교육재정과 이의 효율적 활용이다. 학생들의 납입금에만 의존하여 운영되는 학교교육이 우수한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양성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중등 사학의 경우 학교 재정 구조와 취약 정도가 국·공립 학교에 비하여 훨씬 심각한데 있다.

예컨대 중등 사학이 분담하고 있는 학생 수의 비중은 41.2%나 되는데 비하여 '95년도의 경우 다음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육비의 규모는 33.8%로 국·공립학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위교육비 중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규모도 국·공립 학교의 경우 157만원이나 사립학교의 경우는 115만원으로 공립학교 수준의

73.4%에 불과하여 그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사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국·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값싼 교육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2> 국·공·사립 중등교육의 교육비 비교(1995)

구분	교육비 규모(억원)	학생1인당 총교육비(천원)
총계(A)	64,589	1,400.7
공립(B)	42,743	1,572.3
사립(C)	21,846	1,154.3
사립비중(%)	33.8(C/A)	73.4(C/B)

자료 : 공은배(1995: 14-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학들은 빠른 기간 내에 자력으로 현재의 재정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매우 희박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대부분의 사학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매우 영세한데 기인한다. 즉 다음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학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약 50%가 임아와 토지와 같은 비수익성 내지는 저수익성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유 재산이 실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수익률이 지나치게 저조하여 본래의 목적인 사학재정의 충실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중등 사학법인의 수익용 재산 구성현황

(단위 : %)

구분	토지	건물	유가증권	예금	국·공채	기타
1992년	49.9	11.8	4.7	30.1	0.02	3.4

자료: 공은배(1995: 10)

현행 사립학교법 제5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을 확보하고, 학교운영경비를 의무적으로 학교에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전입금에는 학교운영비를 비롯하여 시설비, 연금부담, 그리고 의료부담금 등과 같은 법정전입금이 있다. 그러나 사립 초·중·고교 재단이 학교 운영에 출연하는 법정전입금은 전체예산의 2.2%에 불과하였다. 즉 교육부에 따르면 '97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전국 1천 6백 60개 사립 초·중·고 운영경비 총액은 2조 7천 1백 34억원이었으며, 이중 학교재단이 부담한 금액은 5백 89억원으로 2.2%에 그쳤으며 나머지 학교운영 경비는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결합 보조금(1조 3천 1백 79억원, 48.6%)과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비 가운데 법정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4년 2.8%에서 '95, '96년 각각 2.6%, '97년에는 2.2% 등으로 해마다 하락하여, 사학 재단의 학교재정에 대한 기여도는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문화일보 인터넷 전자신문, 1998년 11월 9일).

이처럼 취약한 교육재정상태 하에서 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논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기 상조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육 발전을 위하여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 관건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중등교육은 사학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따라서 중등교육의 발전은 사학의 발전 수준을 능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직시한다면, 중등 사학의 교육 발전을 지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의 재정 수준을 개선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당면 과제로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등 사학의 교육 재정 구조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사학 재정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수준이 매우 미흡함을 감안할 때 시급한 사항은 정부의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일이다. 사립 학교는 국·공립 학교와 대립적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공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등 사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국가 예산의 낭비가 아니며 오히려 전전한 사학의 육성을 통한 국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사학의 공공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사학 경영의 원천이 되는 학생들의 납입금에 대하여 사립 학교를 국·공립 학교와 같은 차원에서 통제하는 현행과 같은 정부의 교육 정책 하에서는 사학 재정의 결손(교육개혁위원회, 1994;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1994; 사학진흥재단, 199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8) 부분은 더더욱 국가가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여러 공청회나 학술 모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촉구된 바 있는 사항이지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중등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의 확충 및 지원 방식의 개선, 공·사립 간 지원의 형평성 제고, 사학에 대한 세법 체계의 개선 등 제도적 보완 작업에 정부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주의를 환기시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25조의 기본 취지가 가시화 되도록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나 IMF 관리체제하에서 정부의 재정형편 또한 그리 넉넉한 것은 아니다. '97년 하반기부터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 예산이 5,773억원 감액된 바 있으며, '98년도에는 지속적인 경제 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하여 '98년 5월의 경우 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인건비 등 소요 자금의 일부를 금융기관에서 일시 차입한 바 있다(정영선, 1998: 32). 이러한 경향은 '99년도에도 계속되어 지방 교육재정 수입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등 사학은 모든 것을 정부에만 의존하며 정부를 탓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중등 사학 역시 학교 설립 재단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수단 내지 방안이 충분치 못함으로 인하여 사학이 국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공익 기관으로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학 특유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감을 통감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등 사학 설립 재단들은 자구의 노력을 통하여 취약한 교육재정 자립도를 고양시킴으로써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학 교육을 정상화·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자구대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사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법인의 교육비 전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저수익성 재산의 고수익성 전

환 즉 저수익 내지 비수익에 가까운 토지 재산의 보유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현금, 건물, 유가증권 등으로 법인의 수익용 재산을 전환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학이 저수익성 부동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더욱 권장하기 위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사학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박정수·김영철, 1998: 72). 또한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6조 1항)는 규정에 의거하여 수익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학 교육비의 주요한 재원의 하나가 되어야 할 법인 전입금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94년도부터 회원 대학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7년 주기의 대학평가인정제의 경우와 같이 예컨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주관이 되어 전국 단위 또는 각 시·도별로 시행되는 4년 주기의 사립 중등학교 평가인정제(가칭)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사립학교의 경영혁신·학교운영과정·학교 교육의 효율성과 교육의 성과 등에 대한 엄격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중등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수한 중등 사학들을 선정하여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차원에서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또는 대응지원(matching fund)을 받게 하며, 또한 평가결과를 교육수요자에게 전면 공개하여 학교선택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입시전형에도 참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립 중등학교 평가인정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당장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사학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학의 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교법인의 교육에 대한 투자 의욕을 고취시킬 물론 평가 준비 과정을 통하여 학교 교육의 경쟁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중등 사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보다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명분과 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구 노력과 함께 현재 많은 대학들이 학부모나 동문 또는 기업체들에게 학교채의 발행을 통하여 또는 기부금을 받아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하거나 부족한 교육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학들의 이와 같은 재정확보 노력은 사회적으로도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등 사학의 경우에도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적으로(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 시행령 제64조) 허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및 운용하는 한편 사학 법인 차원에서 학교채의 발행 등을 검토하여 당면한 재정 결합 문제를 해결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중등 사학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신뢰성 확보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함께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집행도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학교 단위의 경영 구조를 개선하고, 학교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문제점의 해소와 낭비적 요소의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사료된다.

IV.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중등 사학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핵심적인 과업은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일이나. 이를 위한 대전제는 유능한 교원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훌륭하게 조성된 교육 환경 내에서,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두 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리나 질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성실한 교원들의 확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보다 만족한 상태에서 교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유인 체제를 강구하여야 가능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 교원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가 다른 직종과 비교할 때 '낮다'는 의견이 많았으며(낮다 45.5%, 매우 낮다 15.1%), 경제적 지위에 대하여는 '낮다'는 평가가 75.8%(낮다 54.9%, 매우 낮다 24.9%)나 되어 경제적 지위에 강한 불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임연기, 1998: 112-113). 이처럼 현직 교원들의 다수가 자신들의 직업을 비하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 사학의 교원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특히 사학은 국·공립 학교의 조직 체계와 비교할 때 전문직으로의 진출기회부족 등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교원들의 순환 교류 균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연수기회도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공립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표 4> 국·공립과 사립교원 해외 연수 현황 비교 (단위 : 명)

연도	국·공립	사립	계
1990	2,365(79.4)	613(20.6)	2,978(100.0)
1991	2,486(82.1)	543(17.9)	3,029(100.0)
1992	2,348(82.5)	507(17.5)	2,891(100.0)
1993	2,759(81.2)	639(18.8)	3,398(100.0)

주 : ()안은 비율(%) 안.

자료: 교육부 교원 연수편람(1992) 및 내부자료(1993).

서정화(1995: 30)에서 재인용

사립 학교의 조직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특수성은 결국 우수교원을 확보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유능하고 성실한 교원의 안정적 확보와 유지를 위하여서는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근무 조건, 봉급, 지위 등과 같은 외적 요인들의 과감한 개선과 더불어 성취감과 안정감을 갖고 수업의 질적 향상에 전념하도록 학교내의 교직체계와 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하는 일에 중등 사학의 경영자들은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관건이 되는 쾌적한 교육 환경의 조성과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 환경에 비해 협력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노후 교실을 비롯한 책·걸상 등 학교기본시설의 개·보수, 학생 및 교원들을 위한 편의 시설의

확충, 실험·실습시설, 특별교실의 현대화 등 교육시설의 재구성이다. 이들 교육 시설은 학습을 성립시키는 결정적인 지원조건으로서 이의 우선적인 해결 없이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등 사학의 경우 이 수준에서 친일보하여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운영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수행평가 등 교육 체제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 계획 속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여 과밀 학급을 해소하거나, 학급 수를 축소 조정하여 과대 학교 규모를 완화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가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단위 교원조직의 개편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이종태 외, 1998: 145-178).

특히 열악한 상황인 도서관의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도서관을 통하여 학생들의 경우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교사들은 교수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획득하여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매우 시급한 선결과제임에 틀림없다. 또한 도서관을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개방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며, 그들과의 유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결과적으로는 학교발전을 위한 도움을 획득할 수도 있음에 착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인천시 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시내 3백 44개 초·중·고교 가운데 자체 도서관을 보유한 학교는 4.4%인 15개교에 불과하다”(문화일보 인터넷 전자신문, 1998. 10. 28)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공학적 접근을 시도하여 효율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정보매체들을 사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든다면 멀티미디어 교실을 확충하고, 교육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서 학교 내에 정보 통신망(LAN)을 구축하고 인터넷 전용선을 도입하는 일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정보화 교육과 멀티미디어 교육을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컴퓨터망을 활용하여 정보의 공유화와 학생들의 재택 자율학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학부모들과 정확한 교육 정보를 수시로 교환할 수 있음은 물론 학사 업무의 전산화와 교내 전자 결재를 가능케 함으로써 교원들의 업무량을 경감시켜 교육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지원 체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곧 고등학교 기간 중 누구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검색·활용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배양케 하고, 이를 정보소양인증제를 도입하여 평가하며, 그 결과를 대학입시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하게 한다는 교육부의 기본 입장(교육부, 1998. 10. 19: 12)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익숙하였던 우수학생의 개념은 학력이 뛰어난 학생을 의미하였으나, 이제는 수능성적과 내신성적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각 학생이 지니고 있는 창의력과 잠재적 소질, 장인정신, 정보·예능·외국어 등 특정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특기를 지니고 있는 학생으로 변화된다. 즉 특기, 품성, 자질, 봉사활동, 성적 등이 학생 개개인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동질 가치로 인식되는 것이다(교육부, 1998. 10: 27). 이와 같은 우수학생을 유품·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겠으나,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 과정과 최적의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여 양질의 교육적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언제나 필요한 것이지만 특히 신입생 선발이 학생들에 의한 선지원 후추첨배정으로 이루어지는 입시관리 체제하에서는 교육 공급자로서 학교는 교육선택권을

갖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또한 중등 사학의 경우에도 학업 성취 가능성은 높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진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배려로서 충분한 장학 기금을 확보하여 등록금에 대한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교내·외 장학 제도의 확충 역시 중요한 유인 요소로 간주된다.

다가오는 무한경쟁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에 수동적이어서는 아니 되며 오히려 변화를 통한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합리적 학교 경영을 통한 수업의 질적 향상을 지향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을 유지하면서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능동적인 시도는 경쟁 사회에서 중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학과 국·공립학교 간, 또는 사학과 사학간의 불가피한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V. 다양화·특성화 교육 방안의 모색

사립학교의 설치 및 확대와 관련하여 찬성론자들은 다양성, 선택권, 혁신, 경쟁을 중요시하며 자유, 자율성, 다원주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기본논리는 사학이 국·공립학교가 빠지기 쉬운 관료화와 경직화를 지양하고 항상 새로운 변신을 도입하여 진보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체계 및 교육운영방식을 개발·적용함으로써 교육성과의 향상에 주력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나민주, 1998: 1366).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중등 사학이 국·공립학교와 비교할 때 설립주체만다를 뿐 거의 유사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의 교육현실은 분명히 어딘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모든 중등 사학은 스스로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기 독특한 교육 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중등 사학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존재 의의를 다시 한번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사립 학교는 독자적인 전학 이념과 교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교육 기관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학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책무성의 강화 속에서 최대한의 자율성 보장 및 특수성의 신장을 위하여 특별한 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학의 성격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1조는 “사립 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 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한다”고 그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

사학은 출발에 있어서 국·공립 학교와는 본질면에서 성격 차이가 있으며, 이와 같은 특수성에 따라 중등 사학은 각기 독창적인 교육 이념과 교육 목표에 입각하여 각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의 요구와 구성원들의 희망 및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교육과정에 의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차원의 사립 중등학교 모형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성화되고 다른 학교들과 차별화된 학교들이 많아야 수요자들의 이질적인 교육욕구를 충족시키며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한 국·공립 학교와의 차별화 전략이 성공하였을 때 사학은 준공립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사학으로서 본연의 존재 가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학의 교육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두번째로 다양한 교육의 제공과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 가능성이다. 선지원 후추첨제에 따라 교육 수요자들에게 학교 선택권(이종재, 1998: 2720-2732)이 허용되면서 학부모는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일정한 학군 내에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중등 교육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 설명되며, 학교 선택과 기준은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가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한 후 자기가 원하는 유형의 교육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입수한 교육정보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것이며, 만약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이들의 욕구 수준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하게 될 경우, 이 학교는 다른 학교로 고객을 뺏기게 되는 것이다. 이제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의 독점적 공급자의 위치에서 행사하던 특권을 향유할 수 없게 되었다. 학교는 학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 생산자와 소비자의 대등한 관계에 서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역으로 학교가 학부모들의 선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종속적 위치에 서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는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중등 교육이 직면하게 되는 중대한 구조적 변화인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위기감이 훨씬 심각하게 여겨지는 쪽은 역시 중등 사학이다. 사학이 교육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당하였을 경우 더 이상 설자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쟁 사회에서 사학 유지의 관건은 우수 고객의 확보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하여 효율적인 학교체제의 확립과 학교조직의 질 관리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중등 사학은 학생 개개인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적합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학교별로 독창적이며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이며, 주도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국·공립 중등학교에 대하여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정책은 중앙집권적인 교육과정운영이 초래했던 경직성과 획일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교육과정의 결정권을 시·도 및 학교단위에 많이 위임하면서 지역화·학교화를 점점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예컨대 2000년대에 실시하게 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재량시간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학교중심의 교육과정 결정과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김재복, 1998: 50). 또한 대학의 학생선발방법이 개선됨으로 인하여 학生活동, 특별활동, 사회활동, 동아리활동, 각종 대회 수상경력, 흥행, 특수기능 보유, 각종 자격증 등이 대입의 주요전형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중등 학교에도 상급학교 입시위주의 암기식·주입식 교과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실질적 의미의 교육정상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학교 경영자의 결단이다. 중등 사학은,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며 학습활동을 선택할 권리를 주고 해당학교의 설정, 지역사회의 여건과 필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교원들과 학부모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전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학교 나름대로의 특정 교육활동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독자적인 교육가치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중등사학이 학교교육의 특성화를 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할 수 있을 것이나 몇 가지 예시를 한다면 다음과 같다: 특정교과의 보충 심화 또는 선택학습(영어회화시간, 독서시간, 과학 탐구 시간 등), 범교과 통합학습(기본 인성 교육, 민주시민교육, 통일교육, 환경교육, 성교육, 경제소비교육 등), 학급단위 주제 탐구활

동(영국의 Topic work, 미국의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개개인의 과제 연구활동(개인별 주제에 대한 논문작성), 특정프로그램 운영(읽기 능력 신장 프로그램, 사고력 신장 프로그램, 창의력 신장 프로그램 등), 현장 체험 학습 및 봉사활동, 특정종목의 교육 및 행사 활동(백일장, 미술 전람회, 음악 경연대회, 운동시합, 특산품 판매 또는 제조활동 등) 등(김재복, 1998: 52-53).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가·사회의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는 일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효율적으로 적응·대처하고 미래의 사회를 선도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학교교육의 중요한 과제임에 동의한다면, 학교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창의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배양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등 사학은 일차적으로 다양하고 이질적인 교육적 수요와 요구들을 제대로 수렴하여 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서 탄력적인 학교교육체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종래의 획일화·서열화·도식화·규격화된 교육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특성화·비정형화된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잠재능력과 창의력 및 인성이 고르게 계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공교육제도인 전통적인 학교가 수행할 수 없는 대안적 역할로서 대안학교(권이종 외, 1998: 517-519)가 좋은 예이다.

외국의 대안학교로는, 이들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강윤중 역, 1995), 영국의 경우 이미 '21년 A. S. Neill에 의해 설립된 서머힐 스쿨(Summerhill School)이 철저한 자유주의 교육으로 유명하다(Neill, 1995). 독일의 경우에는 Rudolf Steiner에 의하여 '19년에 세워진 발도르프 학교(Waldorf Schule)가 있으며, 이 학교는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어 학교 수는 여러 나라에 약 600여개에 달하고 있다(고려대 교육사·철학 연구회, 1997: 31-32). 발도르프 학교는 제도권밖에 있다가 제도 안으로 들어온 고전적인 대안학교임에 비하여, '70년대 초부터 활동을 시작한 자유 대안학교(freie Alternativschule)운동의 결과 독일내에 있는 약 20여 개의 학교에서 실험학교운동이 전개되고 있다(정유성, 1997: 143-144).

우리 나라의 대안학교운동은 '97년 7월 1일 교육부가 일정 기준만 갖추면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고교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교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한 이후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율학교 형태로 다양한 중등학교 설립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서 국제고등학교(동 제 90조)와 특성화 중·고교(동 제 76조 및 제 91조)설립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연극·영화, 만화, 자동차, 디자인, 요리 등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 고교와 자연현장 실습 또는 체험 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각종 대안학교 등 약 2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서울 평화교육 센터, 1997; 동아일보 인터넷전자신문, 1998. 1. 4 - 1998. 6. 30). 규모가 작은 소규모 중등 사학의 경우 전인교육·인성교육·창의력 개발교육·현장실습 및 체험학습을 목표로 하는 대안학교나 특성화 고교로 체제전환을 시도하여 교육의 다양화와 함께 양질의 교육내용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시행할 경우 앞으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중등사학이 탄력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고등학교의 일반계·실업계·예체능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종합형 중등학교로의 학교체계 변화를

통한 특성화이다.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체제가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나라의 고등학교 체제는 크게 보아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양분되어 있다. 따라서 일단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진로 선택은 그것으로 종결되며 새로운 진로 모색을 위한 다른 선택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예컨대 대학 진학지도를 목표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대학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이러한 제도에 의해 희생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물론 이들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별도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인간의 자유·평등·존엄성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적 보순은 교육불평등에 있다. 학생들이 저마다의 능력과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학습기회와 학습권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 및 희망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고 진학하게 하여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서는 중등사학이 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학교형태로서, 일반계와 실업계 및 가능하다면 예·체능계의 과정까지도 동시에 공존하며, 동일 학교 내에서의 상호 교류가 가능한 형태로 중등교육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단일화한 종합학교로 학교체제를 전환하는 일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부터 시작된 종합선택제고등학교 제도는 '종합학과 교육체제'를 지향하는 중등학교의 새로운 모델로서 주목되고 있다. 인문계, 이과계, 외국어계, 예술계, 체육계 등과 같은 다양한 계열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자유선택과목을 합친 교육과정을 가진 종합선택제고등학교는 성공적인 교육개혁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공립학교에서 추진되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 중등 사학에도 매우 유용한 시사를 주고 있다.(운종혁, 1998: 277-298) 영국의 경우 도(최정웅 외, 1995: 165) 이미 '76년부터 전국의 중등학교를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로 개편하도록 하여 능력별 선별위주의 전통적인 교육에서 선발 시험 없이 모든 능력의 학생들이 동등하게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결과 Scotland는 모든 중등학교가 종합학교이고, Wales는 95%, England는 90%가 중등 일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종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독일의 경우는 Fend, 1982; Kultusministerium Rheinland-Pfalz, 1983; 미국의 경우는 강무섭, 1990: 60-75 참조)

이제 중등사학은 현대 사회의 변화 흐름과 시대적 요구를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공급자 위주의 경직화·획일화된 전통적인 학교 교육의 개념과 틀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성화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VI. 입시 교육으로부터의 능동적 탈피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는 큰 수난을 겪고 있다. 성적위주의 입시경쟁에만 얹매인 획일적·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교육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대학입시제도가 모두 12차례, 평균 약 4년에 한번씩 바뀌는 등 숱한 변천과정을 거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교교육의 정상화·사교육비 부담의 완화·과열과외의 해소 등과 같은 우

리 나라 교육의 원초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우리 나라의 그릇된 학교교육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교육은 인성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쪽으로 치중하고 있다. 중·고등학교는 어디나 예외 없이 성적 상위권에 든 소수의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 구실을 하고 있다. 상위권에 들지 못하는 학생은 이팔청춘부터 깜깜한 세월을 강요당한다. 대규모가 낙오하는 교육 시스템이다. 고전을 읽는 학생은 국가적으로 사라진 지 오래다. 논술고사를 위하여 다이제스트를 읽고 기계적으로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방법을 학습할 뿐이다. 내신성적 때문에 친구도 사귀면 안되고 행동도 정해진 규율에 맞는 국화뱅처럼 해야 한다. 친구가 적이 되는 정글의 교육이면서, 양심이나 청춘의 활기는 거세되는 온실의 교육이다. 모두가 닮도록 하는 집단모방 서클이자 일등이 아니면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집단굴종의 도장이다. 그 사이 개성은 전부 다 마모되고 신사고의 능력이 사라진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머리가 비상하게 좋으냐, 돈이 많으냐의 단 두 가지 일 수밖에 없다”(국민 사이버 넷. 1998. 9. 4).

이와 같은 교육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의해 준비된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과 ‘교육비전 2002 : 새 학교문화 창조’안이 발표됨으로써 2002학년도에는 또 한차례의 대폭적인 대학입시제도 변경이 예상되고 있다. 새로운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후 한 일간신문은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교육혁명이 시작됐다. 주입식교육의 전면폐기와 무시험전형의 대폭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2002학년도 대학입시제도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초·중등 교육 정상화 방안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우리 교육은 건국 50년이래 가장 광범위한 질적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난의 위기 속에 시작된 교육개혁은 입시위주의 학력사회에서 창의력과 다양성을 갖춘 21세기형 인간양성을 목표로 하여 있어 성폐여하에 따라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문화일보 인터넷 전자신문, 1998. 10. 23).

확정 발표된 2002학년도 새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의 초점은 무시험전형제의 도입에 따른 선발기준의 다양화 즉 학업성적이나 시험점수 이외의 요소가 대학입학 전형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과, 대학별 다양한 자체 전형기준에 의한 독자적 학생선발, 이원화된 정시모집과 수시 모집으로 다양한 선발 기회 보장, 특별전형의 활성화, 학교장 및 사회인사에 의한 추천제 확대 실시 등이다(교육부, 1998. 10. 19).

새로운 제도인 대입 무시험전형제 하에서는 전과목에 걸친 학과성적이 다소 뒤떨어지는 학생이라도 한가지 특정분야에서 우수할 경우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즉 아직까지의 대학입학 선발방법이 모든 전형요소를 점수화하여 총점에 의한 석차순으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필요한 인원만을 선발하는 제도였다면, 2002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이러한 서열화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학생을 다양한 척도와 기준에 의해 여러 줄로 세워놓고 소질과 잠재력, 재능과 특기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전형 및 추천방법을 통해 연중 수시로 선발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복수 지원 기회와 대학 선택의 폭을 확대·보장

할 예정이다.

표면적으로는 전인교육·인간화 교육을 표방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학교교육은 대학입시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묵시적인 고정된 관념 속에서 교육의 본질적 측면은 도외시한 채 교육의 수단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교사주도의 암기식 주입식 교육만을 고집하는 일에 익숙하여 있는 일선 학교현장에서 이와 같은 교육혁명적인 조치들이 과연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선 고교에서는 당장 '99학년도 신학기부터는 각종 개혁조치들을 학교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여만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첫째로, 종래와 같이 영어, 수학, 국어 등 몇 가지 과목중심의 폐쇄적인 암기식·주입식 학습방법만을 고수하여서는 새로운 대학 입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교육부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고등학교간의 학력격차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학생부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모든 고교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고교 등급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한바 있으나, 실제로는 각 대학이 전형과정 중 해당 고교의 특성과 교육과정·교육활동의 특징을 고려하여 그 차이를 내부전형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자율이며, 입시위주 교육에 치중하는지 전인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등을 참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교육부, 1998. 10. 19: 18). 따라서 이제 대학입시의 중요한 관건은 고교의 전인교육의 추진을 위한 고교교육 정상화 정도임을 중등사학은 직시하고, 차제에 중등교육기관이 대학입시 준비 교육기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등사학은 일차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개성과 흥미, 창의성을 살리며, 장래성을 존중하는 교육과 진로지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즉 교원들의 현실적인 자세 전환과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개발 및 학급당 학생 수의 축소 등 학교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의 형평성만을 고려한 일률적인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수준 및 희망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과 선택 교과제도의 조속한 실시 등 새로운 교육과정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솔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실제로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야 하며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특별 활동 및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동시에 학생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교육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은 곧 공급자위주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인성개발 교육으로의 체제를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 역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등사학들이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될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된다. 특히 새로운 입시제도하에서는 학교에 대한 대학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할 것이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홀륭한 인성 함양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하여 지식 전달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교육 과정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 학교야말로 높이 평가될 것이다. 중등사학의 경영자들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하여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고 새 학교문화 창조를 구현하면서, 학생·학부모 및 대학들에 대하여 학교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에 옮기며, 이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획득하는 일에도 능동적인 입장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중등사학은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① 교사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 중심의 학교 교육, ② 획일화 교육에서 자율화·다양화·특성화된 교육, ③ 교과서 중

심의 교육에서 현장 체험을 중시하는 학교 교육, ④ 평균인 양성교육에서 학생 개개인의 소질 계발과 잠재력 발현의 교육, ⑤ 지시 위주의 학교 풍토에서 구성원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자율과 책임을 다 하는 학교 풍토, ⑥ 지식 위주 교육에서 지·덕·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교육부, 1998. 10: 2)

VII.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의 제고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교사가 바뀌어야 학교가 바뀔 수 있으며, 교육이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교사는 교육활동의 담당 주체로서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리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 하에 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이해된다. 실제로 교육의 혁신은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며, 학교의 혁신은 교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혁신을 통하여 교육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보면 현직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책무성 세고 등 자질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면 흔히를 교육을 학부모나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학교가 시켜 준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 경우 교원은 당사자들의 희망에 따라 회동적으로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그의 역할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수요자의 주문에 응하는 교육'이라고 해석해시는 안 된다. 즉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란 당사자이건 친권자이건 수요자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교육받는 당사자의 '주문에 응하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받는 당사자의 '필요에 응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는 교육받는 당사자의 주관적 욕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삶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어떤 것을 뜻한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과 잠재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데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필요이다.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는 이러한 필요를 가르치는 사람, 교육자가 교육 대상자와의 대화도 없이,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수요자 중심 교육에서는 교육자는 이러한 필요를 교육 대상자와의 만남과 대화, 인격적 교섭을 통하여 판단하는 것이다(김성열, 1998: 25).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현직 교원의 전문성 계발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특히 앞의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학에서 차지하고 있는 교원의 비율이 전체 중등교원의 37.6%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중등사학의 노력은 한국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긴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교원들의 전문성 촉진을 위한 현직교육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정보를 습득하여 교육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한국교육행정학회, 1996: 197). 그러나 이는 교원이 전문적으로서의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지식과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전문적으로서의 교직풍토를 조성하여야 하며, 국내·외 연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교원의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교

원들의 직무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여 규제와 통제 중심의 교직 생활에서 벗어나 의사 결정 과정에 교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자율적이며 개방적인 학교 운영 체제로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IMF 관리체제하에서 정부와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주소이기는 하나 중등 사학의 경우는 오히려 기존의 행정실을 확대하거나, 최근 학교마다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공문 폭주현상(안터넷 중앙일보, 1999.5.11) 교무실에 행정전담직원을 두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교원들이 최소한의 행정적 부담 이외에는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지원체제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적인 역할 수행에 상응하는 대우를 보장하여 주어야만 전문성 향상에 따른 교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며 책무성이 제고되고 교직사회가 활성화되어 기대되는 학교 교육의 경쟁력은 확보될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시켜나가는 교원이 높이 평가되고, 이에 상응하는 실제적인 대우가 제공되는 교직사회로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교원이 그렇지 못한 교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서는 중등사학의 경우 능력별 교원차등보상제의 도입 역시 적극 고려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성과급제의 도입에 있어서 교원 개인별 평가에만 의존할 경우 개인간의 갈등 또는 비생산적인 경쟁심만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으로 담당 부서 단위 또는 담당 학년 단위의 평가체제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원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학교경영자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보다는 교원 스스로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교원상호평가제의 도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교육에 있어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교직의 여성화 경향은 더욱 심해질 추세이고, 교원의 수요증가에 따른 질 저하가 우려되며, 지식 양의 폭증과 고학력사회가 형성됨에 따라 교직의 전문성 심화에 대한 사회적 요청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정태범, 1998a: 291). 그러나 교원이 발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교육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교원들 스스로가 교육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창의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변화에 대처하며 학교교육에 임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 조성하였을 때 학교교육의 질은 향상되며,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이 회복되어 교육경쟁력은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VIII. 맷음말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보다 향상된 질 높은 교육의 실천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서 학교교육은 경쟁체제의 도입과 교육수요자중심의 교육을 추구하면서 교육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전적 의미로 경쟁이란 “같은 목적에 대하여 서로 겨루고 다툼을 뜻한다”(동아출판사, 1988: 151). 이러한 단순한 경쟁은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 달성을 추구한 나머지 수단적 편의주의에 흐르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목적을 갖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강구되었다 하더라도 접근하는 방법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회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킨 예는 찾

아보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경쟁의 개념을 교육과 관련지어 생각하여 보면 교육 경쟁이란 우리가 해결하고 도전하여야 할 교육적 문제들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자구노력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학들은 경쟁력 확보란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관념에서 벗어나, 피할 수 없는 현실적 경쟁 사회에서 각 사학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극복함으로서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학 이념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구현하여 사학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자위적 수단의 확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사학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중등사학이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수수방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학 진흥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등사학 교육의 특수성과 수월성 추구를 통한 국민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의 중등사학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사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풀어 자율적인 단위학교 운영이 가능한 자립형 중등 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허용하거나 납입금정책의 적정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 노력이 가시화 되었을 때 새 학교문화의 창조는 조기에 성착될 것이며, 중등사학은 교육에 대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여 절 높은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아실현이 가능한 유능한 인재를, 사회적 차원에서는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최적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가 지금은 비록 IMF 관리체제하에 있다하더라도 우리 나라보다 먼저 IMF를 경험한 나라들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정부로부터의 사학을 포함한 모든 교육부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윤정일 외 편역, 1998). “기술적·교육적 지원과 풍부한 자금 그리고 문화적 일체감을 가진 나라가 그리한 장점을 결여한 나라보다 21세기에 낫게 대비할 수 있으며”(변도은·이일수 역, 1998: 422), 또한 “한국이 걸어온 길을 답습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음을 분명”한데 그 이유는 바로 “한국 교육의 활성화에 있다”(변도은·이일수 역, 1998: 430)고 하는 Paul Kennedy의 언명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시사를 주고 있다.

<参考文献>

- 강무섭(1990), “미국의 종합고등학교제도”, *교육진흥*, 1990년 여름호 Vol. 2, No. 4, pp. 60-75.
- 강윤중 역(1995), 『교육개혁안과 그 비판』, John Martin Rich, ed., Innovations in Education : Reformers and Their Critics, 서울 : 양서원.
- 고려대 교육사·철학 연구회 역(1997),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론』, 서울 : 내일을 여는 책.
- 공은배(1995. 10), “신교육체제와 중등사학재정확보”, 『신교육체제와 중등사학재정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공동 학술 세미나, p.

5-26.

- 김종철(1990), 『한국교육정책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 김성열(1998. 4), "수요자 중심 교육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교육월보』, 통권 196호, 서울 : 교육부, pp. 24-28.
- 교육개혁위원회(1994. 11),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재고 방안", 제2차 공청회 자료.
- 교육개혁위원회(1995. 5. 31),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I)".
- 교육개혁위원회(1996. 2. 9),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II)".
- 교육개혁위원회(1996. 8. 20),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III)".
- 교육개혁위원회(1997. 6. 2),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IV)".
- 교육부(1998. 10),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 교육부(1998. 10. 22), "교육비전 2002 : 새학교문화창조".
- 교육부(1999), "교육발전 5개년계획(안)", <http://www.kedi.re.kr/eduplan5/3.htm>.
- 권이종 외(1998), 『신 교육사회학 탐구』, 서울 : 교육과학사.
- 김재복(1998. 2), "학교교육 특색 사업 운영", 『교육월보』, 통권 194호, 서울 : 교육부, pp. 50-53.
- 나민주(1998), "사립학교",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대백과사전』, 제2권, 서울 : 하우동설, pp. 1365-1372.
-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1994), "중등사학의 진로와 재정정책", 21세기 사학 발전을 위한 세미나 발표자료.
- 동아출판사(1988), 『마스타 국어사전』, 중판, 서울 : (주)동아출판사.
- 박정수 · 김영철(1998),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 한국교육개발원.
- 변도운 · 이일수 역(1998), 『21세기 준비』, Paul Kennedy,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 사학진홍재단(1995. 3), "사학의 진홍방안 - 재정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제2집.
- 서울 평화교육센터 엮음(1997), 『대안학교의 모델과 실천』, 서울 : 내일을 여는 책.
- 서정화(1994), "초 · 중등 사학의 활성화 방안", 교육개혁위원회,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재고방안』, 제2차 공청회 발표자료, pp. 3-28.
- 윤정일 외(1996), 『한국교육정책의 탐구』, 서울 : 교육과학사.
- 윤정일 외 편역(1998), 『IMF 구조조정과 교육』, 서울 : 하우기획출판.
- 윤종혁(1998), "최근 일본 중등교육개혁의 동향과 전망", 『한국교육』, Vol. 25, No. 1, pp. 277-298.
- 이종재(1998), "학교선택론",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대백과사전』, 제3권, 서울 : 하우동설, pp. 2720-2732.
- 이종태(1998), 『학교단위 교원조직 개편방안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임연기(1998),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정영선(1998. 6), "IMF 시대와 교육 재정 운용의 효율화", 『교육월보』, 통권 198호, 서울 : 교육부, pp. 32-35.
- 정유성(1997), 『대안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정태범(1998a), 『교육행정학 - 기초와 발전』, 서울 : 양서원.
- 정태범(1998b), 『학교교육의 구조적 개혁』, 서울 : 양서원.

- 최정웅 외(1995), 「비교교육발전론」, 서울 : 교육과학사.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8. 2), “한국교육, IMF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30회 교육정책토론회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1998), 『98년도 교육통계연보』, 서울 : 교육부.
- 한국교육행정학회(1996), 『교육인사행정론』, 서울 : 도서출판 하우.
- 경향 디지털 뉴스(1998. 4. 8), “교육부 교장 10명 초청 교육개혁토론 : 교육도 경쟁원리 도입 필요”.
- 동아일보 인터넷 전자신문(1997. 7. 9), “교육에도 시장원리를”.
- 동아일보 인터넷 전자신문(1998. 1. 4 - 1998. 6. 30), “대안교육 시리즈”.
- 문화일보 인터넷 전자신문(1998. 10. 23), “교실혁명 2002 (1) 중3의 고민과 희망”.
- 문화일보 인터넷 전자신문(1998. 10. 28), “인천시내 도서관 있는 학교 4%뿐”.
- 문화일보 인터넷 전자신문(1998. 11. 9), “사립 초·중·고 재정자립 멀었다”.
- 인터넷 중앙일보(1999.5.11), “전조교 강원지부, 학교공문서 감축요구”.
- 임순만, “국화빵틀로 아이들 찍어내기”, 국민 사이버 넷(1998. 9. 4).
- Fend, Helmut(1982), Gesamtschule im Vergleich-Bilanz der Ergebnisse des Gesamtschulversuchs, Weinheim und Basel : Beltz Verlag.
- Kultusministerium Rheinland-Pfalz(1983), Schulversuche mit intergrierten Gesamtschulen in Rheinland-Pfalz, Mainz : v. Hase und Koehler Verlag.
- Neil, A. S.(1995), Summerhill School-A New View of Childhood, revised and expanded, N. Y. : St. Martin's Griffin.